

요한복음 1장 19-31절 말씀

-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
“네가 누구냐?”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
-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
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
- 21 또 묻되 “그러면 누구냐? 네가 엘리야냐?”
이르되 나는 아니라
또 묻되 “네가 그 선지자냐?”
대답하되 아니라
- 22 또 말하되 “누구냐?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
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?”
-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
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
-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이르되
“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
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?”
- 26 요한이 대답하되
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
-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
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
-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
-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
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
-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
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
이 사람을 가리킴이라
-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
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